

# “이제는 하나될 때...소통·화합의 광주시체육회 만들겠다”

국제스포츠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충  
은퇴 선수 생활체육지도자 전환 지원

기호 1번 박찬모 후보는 '변화의 시작은 우리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 '전문체육 선수·지도자 처우 개선', '학교 체육 꿈나무 육성',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체육행정의 선진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소통과 화합의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기호 1번 박찬모 후보

### 1. 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

- ①광주종합실내체육관(스포츠센터) 건립
- ②광주전·영산강권 수변공원 체육시설 설치
- ③월드컵·염주체육관 주변 스포츠 시설 집약

### 2. 전문체육 선수·지도자 처우 개선

- ①전우이사 활동비 연차적 증대
- ②종목별 운영보조비 연차적 증액
- ③은퇴선수 생활체육지도자 전환 지원

### 3. 학교 체육 꿈나무 육성

- ①체육 인재 장학기금 확보
- ②운동부 창단 학교 장기적 지원 방안 마련
- ③각종 꿈나무 우수선수·신인 발굴 주력

### 4.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 ①시민 1인 1종목 확대
- ②광주 체육대회 대충전 체육대회 개최
- ③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 5. 체육행정 선진화

- ①체육인 일자리 창출, 복지 향상
- ②안정적인 스포츠 재원 확보
- ③투명하고 객관적인 체육행정 구현

학교 장기적 지원 방안 마련, 각종 꿈나무 우수선수 신인 발굴대회로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제는 체육회가 변화와 혁신으로 달려야 한다"며 "보조금만 집행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체육인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민선 3기 광주시체육회장 후보 공약

민선 3기 광주시체육회를 이끌 광주시체육회장이 내일 가려진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박찬모 전 광주시육 상연명회장, 기호 2번 전갑수 전 광주시배구협회장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두 번의 선거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을 초래했고, 2명의 전임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며 위상이 추락했다. 박찬모, 전갑수 두 후보는 소통과 화합으로 새로운 광주시체육의 미래를 열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으로 이번 선거에 임한다는 각오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는 체육인 429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맞고을체육관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에 나서는 두 후보의 비전과 공약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 기호 2번 전갑수 후보

### 1. 도약하는 전문체육

- ①각 종목단체 전무이사 처우 개선
- ②체육인 일자리 창출 및 연금제도 강화
- ③전국체전·아시아게임 광주 유치

### 2. 건강한 생활체육

- ①체육시설 개방 확대 및 순회 사용제 추진
- ②종목별 시장기 및 회장이 대회 지원금 확대
- ③스포츠시설 건립 확대 추진

### 3. 함께하는 자치구체육

- ①구체육회 체육지도자 무기계약직 단계적 전환
- ②구 종목단체별 구대항 리그전 개최
- ③시·구 협력 통한 유소년·어르신 스포츠 활성화

### 4. 꿈꾸는 학교체육

- ①광주형스포츠클럽 확대 및 리그전 개최
- ②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 및 동·하계 훈련비 인상
- ③초·중·고 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

### 5. 혁신하는 광주시체육

- ①재정자립 위한 체육진흥조례 개정 추진
- ②광주체육회재단 설립
- ③종목 사무실 환경 개선·행정 보조 인력 지원 추진

기호 2번 전갑수 후보는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광주시체육을 지향하며, 강한 추진력을 통한 광주시육 중흥기를 열어 체육인에게 자부심을 주고 시민 건강과 행복을 쫓는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배구 선수 출신인 그는 광주시배구협회 회장, 광주시체육회 이사, 한국 실업 배구연맹 부회장, 대한 건기협회 부

재정 자립...체육진흥조례 개정 추진  
공정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행정 구현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대한 장애인배구협회 회장을 맡았다. 고액기부자클럽인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106번째 회원이다.

전 후보는 졸업 체육계에 몸담았던 체육인임을 강조하며 4가지 목표를 밝혔다.

그는 "첫째, 체육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단결하고 화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랑받도록 하겠다. 둘째, 잘 갖춰진 스포츠 인프라에서 체육인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충분히 스포츠를 즐기도록 하겠다. 셋째, 공정하고, 차별 없는 광주시육 행정을 펼쳐 어느 종목 어느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체육회를 만들겠다. 넷째, 체육회의 혁신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능력에 따른 인사로 업무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도약하는 전문체육 ▲건강한 생활체육 ▲함께하는 자치구체육 ▲꿈꾸는 학교체육 ▲혁신하는 광주시육을 제시했고 이를 실천할 36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전 후보는 "확장 시절에는 배구선수, 이후는 후진을 양성하는 지도자로 활동하며 체육현장을 떠나지 않고 '뺏속까지 체육인'으로 살아왔다"면서 "체육인과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체육회를 만들고 체육회의 업무도 체육인과 시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변화시키고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 후보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체육 행정을 펼쳐 어느 종목 어느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체육회를 만들겠다"면서 "전문체육인도 도약할 수 있도록 각 종목단체 전무이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학교체육 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맞춤형 시민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박희중기자

## 월드컵 16강 영웅들 'EPL로, 라리가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왼쪽)과 이강인이 각각 소속팀으로 복귀하기 위해 13일 오전 출국하며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항 즉석 사인회'로 응원 보답한 손흥민, 팬 배웅 속 영국으로 이강인 "소속팀에서도 월드컵에서 얻은 좋은 기운 이어가겠다"

12년 만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16강 달성에 앞장선 손흥민(30·토트넘)과 이강인(21·마요르카)이 다시 소속팀에서 비상을 준비한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7일 입국했던 손흥민과 이강인은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날 항공편 출발을 2시간 가까이 남겨둔 오전 9시15분께 공항에 도착한 손흥민은 입국장에 물린 팬 200여 명의 배웅을 받았다.

갈색 풍코트를 입고 검은 뽀뽀 안경을 낀 그는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앞쪽에 선 팬들부터 차례차례로 사인을 해줬다.

꽤곡히 물린 팬들에게 사인을 최대한 많이 해주려 애쓰면서 출국 수속 카운터로 가까이가 시간이 한참 걸렸다. 예고 없이 시작된 손흥민의 '즉석 사인회'는 40분 가까이 이어졌다.

손흥민은 사인을 하는 중간에 손을 흔들며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손흥민이 아버지 손웅정 씨와 포옹을 나누는 뒤 수속을 위해 카운터에 들어간 이후에도 100명 넘는 팬이 게이트로 향하는 길목에서 사인을 기대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수속을 마치고 나온 뒤에 비행기 출발 시간이 임박한 터라 손흥민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것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토트넘은 28일 오후 9시30분(이하 한국시간)부터 열리는 브렌트퍼드와의 EPL 17라운드 원정 경기로 월드컵 이후 공식전 일정을 이어간다.

그전에 22일 오전 4시엔 안방인 런던의 토트넘 핫스파 스타디움에서 니스(프랑스)와 친선경기가 예정돼 있다.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넣어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엔 정규리그 3골 2도움, UCL 2골 등 공식전 합계 5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토트넘은 EPL뿐만 아니라 16강에 올라 있는 UCL과 3라운드를 앞둔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등을 쉴 새 없이 소화해야 하기에 손흥민은 영국에 들어가

컨디션 끌어 올리기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은 스페인에 도착한 직후 소속팀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마요르카에 합류해 남은 시즌을 위한 담금질을 시작했다.

검은색 후드와 편한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공항으로 들어선 이강인은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소속팀인 마요르카에서도 월드컵에서 얻은 좋은 기운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난 이강인은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거듭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월드컵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선수 경력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4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마요르카는 오는 21일 예정된 코파 델레이(국왕컵) 경기를 시작으로 월드컵 휴식이 이후 시즌을 재개한다. /연합뉴스

## “새 국가대표 감독, 내년 2월까지 선임 완료”

### 대한축구협회 “이달 중 선임기준 확정...1차 후보군 가닥”

한국 축구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의 뒤를 이을 국가대표팀 사령탑이 내년 2월까지 선임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열린 올해 마지막 이사회에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새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일정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부터 대표팀을 지휘한 벤투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재

계약하지 않고 임기를 마침에 따라 한국 축구는 새로운 국가대표 사령탑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보고된 계획에 따르면 새 감독 선임은 내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적합한 지도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이달 중 새 감독 선임 기준을 확정하고 1차 후보

군을 추릴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최종 후보군을 선정할 뒤 면접으로 역량을 점검하고, 2월엔 우선 협상 대상 순위에 따라 개별 협상을 진행해 선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2023년 협회 예산안 심의도 이뤄졌다.

내년 축구협회 예산은 1천581억원으로, 올해(1천141억원)보다 440억원 늘었다.

2013년의 1천234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 ‘양천구 쿠드롱’ 김욱 ‘초대 챔프’ 필리포스도 제압

### PBA 32강행 ‘돌풍’

‘양천구 쿠드롱’이라는 별명을 가진 무명의 선수로 ‘당구 황제’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웰컴저축은행)을 잡는 파란을 일으켰던 김욱이 ‘그리스 천재’ 필리포스 카시도코스타스(그리스·하나카드)까지 제압했다.

김욱은 지난 12일 열린 2022 하이원리조트 PBA-LPBA 챔피언십 PBA 64강에서 필리포스를 세트 점수 3-1(15-11 6-15 15-13 15-13)로 승리하고 32강에 올랐다. 앞서 128강에서 쿠드롱과 승부차기 접전에서 승리해 최대 이변을 연출했던 김욱은 PBA 초대 챔피언 필리포스마저 잡고 프로당구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김욱은 첫 세트부터 필리포스를 몰아쳤다. 2이닝까지 2-9로 끌려가던 김욱은 침착하게 포인트를 쌓아 4이닝까지 7-11을 만들었고, 5이닝에서 하이원 8점으로 1세트를 가져갔다.



PBA 하이원리조트챔피언십 파란의 주인공 김욱. <PBA 제공>

세트 점수 1-1로 맞선 3세트부터 김욱의 집중력이 되살아났다.

5이닝까지 2-6으로 밀리다가 6이닝에 하이원 8점에 성공해 경기를 뒤집은 뒤 10이닝에 3세트를 끝냈고, 여세를 몰아 4세트마저 15-3으로 승리했다.

불과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켈런지 투어(3부)를 병행했던 김욱은 이번 시즌 PBA 큐스쿨(1부 선발전)을 통해 1부로 승격해 재능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제’ 최정 vs ‘천재’ 김은지 여자기성 우승 격돌

한국 여자바둑계의 최강자 최정(26) 9단과 ‘천재 바둑 소녀’로 불리는 김은지(15) 5단이 처음 타이틀전에서 격돌한다.

김은지는 12일 열린 제6회 여성 여자기성전 준결승에서 김윤영 5단에게 20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앞서 최정은 지난 6일 열린 준결승에서 김재영 7단을 불계로 꺾고 결승에 선착했다.

이에 따라 최정과 김은지는 19일부터 여자기성전 우승컵을 놓고 3번기를 펼친다.

최정은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 여자바둑계의 1인자다.

2013년 12월부터는 109개월 연속 한국 여자랭킹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삼성화재배에서는 여자프로기사 최초로 메이저 세계대회 결승에 진출하며 기염을 토했다.

2020년 1월 프로 데뷔한 김은지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기대주다.

여자랭킹 3위로 도약한 올해는 89승 40패 기록, 남녀 기사를 통틀어 최다승을 기록 중이다.

여자기성전은 19일 결승 1국, 20일 결승 2국을 벌인 뒤 26일 최종 3국을 둔다. /연합뉴스